

존경하는 조병인 교육감님께,

먼저 교육감님으로 당선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미국 Michigan 주에 있는 미국 전역에서 사범대학으로 가장 잘 알려져있고 또한 매년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Eastern Michigan University 에서 창의력과 영재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경희 입니다. 저는 매 여름 방학때 마다 제 모국을 방문하여 수백 수천의 교사들을 연수를 해 오고 있고 또한 이번 8 월 에는 포항과학교육원에서 Dr. Cramond 와 함께 과학영재교사들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오기전에 조지아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교사들의 미국 토런스센터에서의 창의력 교육연수를 책임을 맡아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교사경력 10 년과 미국교실 경험을 잘 활용을 하여 한국교실에 어느 미국교수의 어떤 강의가 도움이 되는 지를 알아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고유한 영역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다른 대학의 교수로 부임이 된 이후로도 계속 그 일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꼭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영재교육과 창의력교육에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8 월 13 일부터 8 월 25 일까지의 미국 토런스센터의 연수는 실패이었습니다. 나라의 돈으로 미국으로 연수받으러 와서 사적인 여행때문에 공적인 연수프로그램의 시간표를 뒤늦게 바꾸고, 점심시간까지를 이용해서 미국교수가 강의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연수는 생략하는 등 이곳 미국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로 여행을 갔다 온뒤로도 그 연수 후에 있을 또 다른 서부여행에서 압선중에 하나인 “경비행기를 탈 공금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회의가 날이면 날마다 계속되고 언쟁이 오고갔습니다. 저는 이번 연수를 주관하면서 이번 연수단원들이 도대체 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Fort Discovery 방문도 첫째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둘째주 월요일로 바뀜으로써 토런스센터 측에서 이미 Fort Discovery 에 지불한 토요일 점심값은 벌써 헛되이 없어져 버렸고, 그 대신에 월요일에 연수단 자비로 식사를 하게 되는 등의 개인의 사비가 더 나감에 따라, 이미 동부여행때문에 개인적인 지출을 많이 한 터라 한끼 한끼의 단체식때 마다 공금이 얼마남아 있는가에 대한 언쟁만 오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연수단을 위해 일하시는 집행부의 식사값은 제가 따로 지불해야했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도대체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어떻게 연수단원들을 선발했는가 하는 것과, 또 연수단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동부여행때문에 여행사에게 이미 3000 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행을 꼭가야 한다는

김순복연수단장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제가 김득호과장님과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해서 그 건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북교육청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이번연수에 투입을 해 놓고 왜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지 저나 미국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0시간의 연수일정 중에서 56시간의 이수증을 저희 토런스센터 소장님이신 Dr. Cramond 께서 손수 만드셔서 연수단원들에게 일일이 수여를 하셨는데요. 그나마 56시간이라도 이수증을 받아가는 것만해도 감사해야 할텐데, 감사는 커녕 60시간을 다 이수한 것으로 해달라고 난리 법석이니 제가 부끄러워서 미국교수님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연수단들을 새벽에 버스에 태워서, 서부여행을 하도록 Atlanta 공항으로 잘 모시고 가 달라고 운전사에게 부탁을 한 후에, 제가 사는 이곳 Michigan 까지 (차가 막히는 곳이 군데 군데 있는 바람에 14시간 걸릴것을) 18시간을 운전해 오면서 ‘내가 바보같은 짓을 하는구나’ ‘시간을 낭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난 3월 부터 연수를 계획하고 각 학교방문 관계자, 기타 시설방문관계자, 식당관계자, 호텔관계자, 강의하는 교수님들과 의논을 하고, 이 한 건의 연수단이 연수를 받기 까지 제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정성은 다 어디로 가 버린 것인지요?

이번의 연수단에 대한 정식의 해명이 없는 한, 앞으로의 경북도교육청의 어떠한 토런스센터의 연수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아니 토런스센터에서의 연수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해외연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은사님이시고 구미교육청에서 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순직하신 조순현선생님과 같으신 선생님이 되주십시오고 늘 연수단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던 제가 이번에는 그런 인사조차 전혀 소용이 없다고 느껴져서 연수단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연수단들이 이곳 토런스센터에 와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서 내고향 경북 골짜기 골짜기의 영재들을 잘 발굴해내서 그들의 영재성과 창의력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를 세계어느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한국교사연수를 하는 주 목적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때 조순현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또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쓸 수가.....

그럼.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교수 김경희 올림